

# 農業



김 병 원

## 우리 농업 좌절할 때가 아니다

■ 김 병 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소관측팀장

**지** 금의 우리 농업은 희망적인 곳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쌀값이 하락하고 농가에 보관된 쌀은 제값 받고 팔기 힘든 지경이다. 정부는 쌀시장 확대와 과잉시대에 즈음해 가격지지보다는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논에다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마땅히 심을 만한 작목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채소도 과잉 상태에 있어 재배면적이 쏠리면 여지 없이 과잉에 가격폭락으로 이어진다.

대외적으로 WTO 뉴라운드 시작되어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될 것은 불보듯 확실하고 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는 등 우리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시장개방이 가속되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지어 자식 가르치고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채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낮은 상태로 심지어 직접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가격이 괜찮다 하는 품목은 여지 없이 생산이 몰려 안정적인 품목이 없다. 농민들이 짊어진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

운 지경에 있다. 정부는 최근 농업, 농촌의 대내외적인 비상시기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위급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3년의 한시적인 기구로 위기의 한국 농업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내어놓을 지는 미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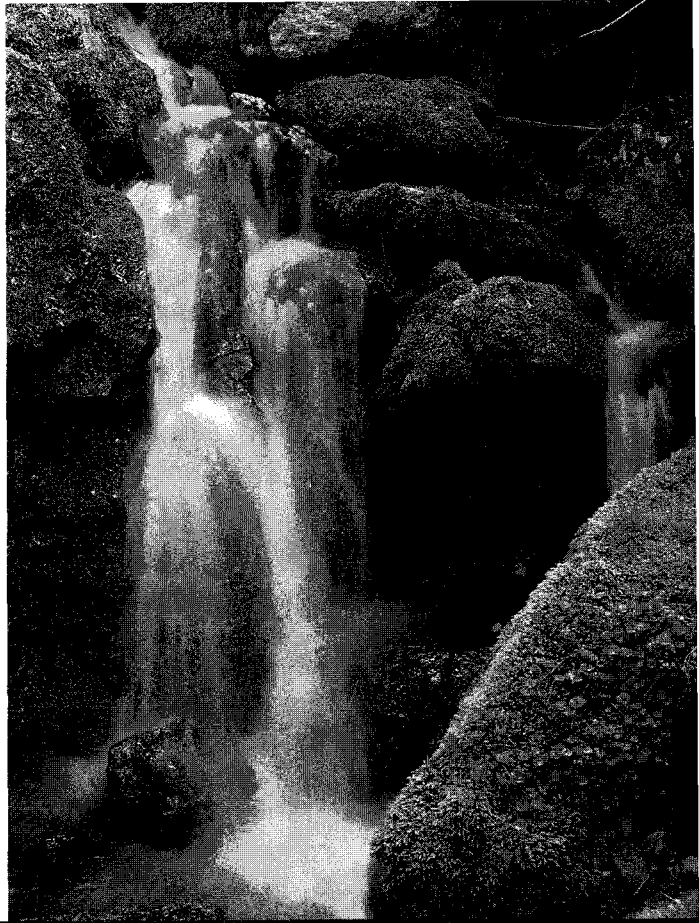
분명한 것은 개방화시대에 정부의 정책은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하다 해도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지고 농민들의 자구노력이나 협조 없이는 훌륭한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농민들은 위기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공동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품질상품 통해 고급시장 진출, 판매 늘려야

국제화시대에 우리 농업은 중국산 등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기본적인 경지면적 부족과 농가의 영농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농업 소득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농

외소득원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훨씬 높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각을 달리해 우리 농업을 살펴보면 강점도 있어 농민들 스스로와 정부, 생산자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농민들보다도 부지런하고 기술습득력이 뛰어나며 학력수준도 높다. 일례로 과거에는 품목별 재배기술 격차가 심해 농민이 작목을 전환하기에 어려웠으나 요즘은 재배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어 작목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은 고품질 재배기술이 뛰어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본, 미국



## 어려운 우리농업, 시각 달리하면 강점 많아 미래 바꿀 수 있어 농업인 개별경쟁 난관극복 어렵고 가격보다 품질경쟁이 승산 많아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외국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많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배는 이미 아시안 배 또는 한국배로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감귤, 버섯류, 깻잎, 상추, 화훼(선인장, 호접란) 등도 한국산 품질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중국산, 칠레산 같은 저가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의 가격 하락과 자급률 저하를 가져오지만, 고품질 농산물로 승부하면 미국, 일본시장 뿐만 아니라 심지어 13억의 중국시장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서도 소비시장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품질 상품으로 고급시장에 진출하면 판매를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컨대 중국은 공산당 간부 가족과 신흥 부자층이 수천만 명으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어 대도시의 고급백화점은 이들 고급소비층의 주요 구매처가 되고 있다. 이들 고급백화점에는 중국에서도 생산되지만 품질이 높은 식료품, 화훼 등이 많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 농산물수출 확대, 농업 활로 위한 과제

우리 나라는 토지자원이 부족한 영세소농국가로 곡물, 사료작물과 같은 토지조방적 농산물이나 상품차별이 크지 않은 마늘, 양파, 당근, 무, 생강 등 근채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농민의 기술과 성실성, 자연 조건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예컨대 시설작물, 엽채류, 일부 과일은 고품질 생산으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수입대항력을 기른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고소득작물로도 육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필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지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개별 농민으로는 영세하고 경

쟁력, 교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별, 품목별로 뭉쳐 공동노력을 해야만 살 수 있다. 개별로는 수입농산물을 당해낼 수 없으며 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아낼 수 없고 상인들의 농간을 이겨낼 수 없다. 공동으로 생산조절을 하고 품질규제나 소비 촉진을 해야 한다.

또한 자기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해야 한다. 부채가 늘어난다고 정부가 도

외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부채탕감은 열심히 하는 농민들과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다. 책임경영할 수 있는 농장, 시설,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지원, 시설투자, 품목선택 등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농업관측정보의 생산과 제공, 경영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정보를 농민들 스스로 적극 수집하고 의사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는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농업의 활로 모색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출농산물의 포장박스나 디자인도 세계수준으로 높이고 국내 수출을 체계화하고 규모화하여 한국의 대표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이 중국, 칠레, 스페인 등의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급과일, 신선채소, 고급화훼 등에 특화하여 품질경쟁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냉기법과 시설, 저온운송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 농외소득원 개발 통해 충격 줄여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해야만 한다.

일본과 대만은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우리 농민들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말 중국과 함께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대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개방이 시작되어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농민들이 동요 없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시장개방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따라서 개방하의 우리 농업·농촌에는 농외소득의 획기적인 증대가 절실하다. 공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농한기 소득 또는 겸업소득도 중요하지만 주5일 근무 실시에 대응해 농촌관광, 체험농업과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외소득원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약정보**

